

# 광주시, 대구·제주와 민주 평화 교류·상생발전 힘 모은다

### 홍준표 대구시장과 군 공항특별법 개정·혁신지구 구축 등 논의 오영훈 제주도지사와는 국립 트라우마센터 공동대응 등 협약

‘민주·인권 대표 도시’인 광주시가 대구·제주 등 타 자치단체와 민주 평화·교류 증진·상생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협약하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지난 17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하고 광주-대구 간 협력 관계 구축, 5·18정신 헌법전문수속 등 상생발전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참배 후 “광주와 대구가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 달빛철도법 통과에 이어 세 번째 결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서 통과시킨 법률의 미비점을 강기정 광주시장님과 협의해 개정하려 한다. 개정안의 요체는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또 “광주와 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를 두바이 같은 규제프리존으로 만들어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강 시장과 의논해 준

비 중”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주와 대구가 대한민국 지방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와 대구는 5·18과 2·28의 역사를 가진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도시지만 앞으로 강소기업이 많은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대구와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의 빛나는 도시, 중심 도시로 키워가겠다”고 약속했다.

두 시장은 참배 후 간담회를 갖고 대구·광주 공항 특별법 동시 개정과 공항 후적지 개발, 달빛철도 조기 개통, 대구·광주 AI 및 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양 도시의 현안과 관심사에 대한 협력 방안 등도 논의했다. 특히 달빛철도 조기 개통을 위해 달빛철도 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어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도와 인권 평화 및 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도 맺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지난 17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상생발전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었다. 이날 협약은 지난달 강기정 시장이 광주시장은 처음으로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해 협력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강 시장과 오 지사는 이날 5·18과 4·3을 상징하는 배지를 서로의 옷깃에 채워주며 우호를 다졌다. 양 시도는 이날 제주 4·3과 광주 5·18을 매개로

한 평화·인권 교류, 국립 트라우마센터 운영 내실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공동 연대, 일상 속 문화예술공연 교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공무원 인사 교류 및 교육과정 교차 운영 등을 약속했다.

강 시장은 “두 도시는 5·18과 4·3이라는 국가폭력을 경험했다는 역사적 공통점이 있다”며 “국가 트라우마센터 등 당면한 과제에 협력하면서 대한민국 평화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깊고 단단하게 결속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오 지사는 “그동안의 민간 교류를 더 든든하게 받치고,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드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인 제주 4·3과 광주 5·18의 역사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하는 연대를 구축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양 시장·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교차 기부도 실천했다. 오 지사는 답례품으로 광주 예술의전당 대극장 좌석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기는 ‘네 이밍 도내이션’을 선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쌀값 결국 18만원대로 추락... 무너지는 전남 농심

### 전남 쌀 재고물량 전국 최고... 정부 수급안전 대책도 미흡

쌀값(80kg)이 을 들어 처음으로 18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쌀값이 18만원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해 7월(18만 6106원) 이후 10개월 만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로 파악한 쌀 한 가마(80kg)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18만 9488원으로, 지난 5일 가격(19만원)보다 0.3% 떨어졌다. 지난해 7월(18만 6106원) 이후 10개월 만에 18만원 대로 내려앉으면서 을 들어 가장 낮았다.

농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통상적 쌀값 추이라면 매년 수확기(10~12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5월부터 오름세로 전환해야 하지만 이대로라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쌀값을 보장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데 현재로서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농민들 반응이다. 당장, 쌀 목표가격을 한 가마니(80kg)당 20만원선으로 유지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도 미흡했다. 벼 재배면적이 줄면서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소비량이 더 크게 줄면서 15만~20만 t 초과 생산되는 형편인데도, 지난해 시장가격도 하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전남 농협 RPC 등의 벼 매입량은 52만 8000 t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전남지역 농협 RPC 등의 재고 물량도 지난해 기준 18만 3000 t으로 전년(10만 3000 t)보다 많다.

전남 뿐 아니라 전국 재고물량도 82만 7000 t으로, 전년(59만 2000 t)보다 23만 5000 t이나 많다.

전남 쌀 재고물량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규모다. 이대로라면 농협 RPC 등은 다음달부터 수확기를 앞두고 재고물량을 줄이기 위해 낮은 가격이라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쌀값 하락세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전남도와 농협 RPC 등이 지난 17일 농협 전남

지역본부 중회의실에서 쌀 시장격리(15만 t 이상), RPC 정부지원 확대, 쌀소비대책 촉구 등을 포함한 ‘2023년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논의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쌀값 안정을 내걸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정적이다.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정부가 수급안정 대책의 책임을 농민과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고 비판한다. 예전에 비해 통계·기상 관측 등의 데이터 관리가 충분히 가능해져 정부가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수급 관리가 가능한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쌀값 폭락으로 이어진 책임을 농민들과 소비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박형대(진보·장흥 1) 전남도의원은 “쌀 이외의 논 콩 등의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여 생산량을 조절하는 한편, 쌀 소비량이 줄어 들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수입하는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 호우 농작물 피해복구비 20억 지급

지난 2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복구비로 20억원이 확정됐다.

전남도는 지난 2월 19일까지 이틀간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13개 시·군, 1168농가(2147ha)에 대한 피해 복구비로 20억원을 확정, 지급할 계획

이다.

시·군별 피해 면적은 강진 676ha, 장흥 622ha, 영광 339ha, 해남 247ha, 고흥 161ha 등이며, 품목별로는 보리 1171ha, 귀리 460ha, 밀 204ha, 양파 104ha 등이다.

보리 등 일반 작물의 경우 1ha당 100만원, 양파, 마늘 등 채소류는 250만원의 농약대도 지원한다.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와 심사를 거쳐 농작물 재해보험금도 지급받는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재해가 일상화·규모화되고 있어 재해 대비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3대 사망사고 제로화 시민실천단 모집

###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 등 광주시, 6월 14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 등 3대 안전 취약분야 사망 제로화를 위한 시민실천단을 21일부터 6월 14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지가 광주시인 된다. 교통 35명, 자살 70명, 산업재해 87명 등 총 192명을 모집하며, 단 자살분야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시민실천단 참여 희망자는 광주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민실천단은 ▲교통안전 인식개선 활동 ▲교통안전 캠페인 ▲자살예방정보 모니터링 ▲생명존중 인식개선 활동 ▲사업장 산재예방 활동 등 분야별 안전문화 실천 활동에 참여한다.

광주시는 시민실천단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활동방식도 다양화한다. 안전신문고 앱, 전통리보드 민원신고 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96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생활터 내 시민 밀착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건영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안전은 우리 모두가 협력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면서 “3대 안전 취약 분야 시민실천단 참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가 실현되도록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5월 남도 전통주에 ‘숙희59’ 선정

5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주로 ‘숙희59(사진)’가 선정됐다.

‘숙희59’는 누룽지향이 나는 곡성의 유기농 백세미로 빚은 전통주로, 용기에서 5년 이상 숙성한 뒤 한 방울씩 내린 59도의 증류식 소주다. 하지만 59도라 믿기 힘들 만큼 깨끗하고 백세미의 고소한 누룽지향이 느껴진다.

지난 1월 한정판으로 출시된 뒤 찾는 사람이 많아 5월 말부터 곡성물을 통해 추가 판매된다.

‘숙희59’를 마셔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마솥 누룽지 풍미와 함께 바닐라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곡성 ‘유기농 백세미’ 100%

를 사용하는 ‘숙희59’ 이외에도 곡성 ‘진한경 신동진쌀’과 특산물인 토란으로 만든 ‘토란막걸리’, 곡성머스크 멜론으로 만든 스파클링 막걸리 ‘우주멜론미’ 등이 같은 곳에서 생산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전통주 발굴 및 홍보에 힘써 지역 전통주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문화신탁**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